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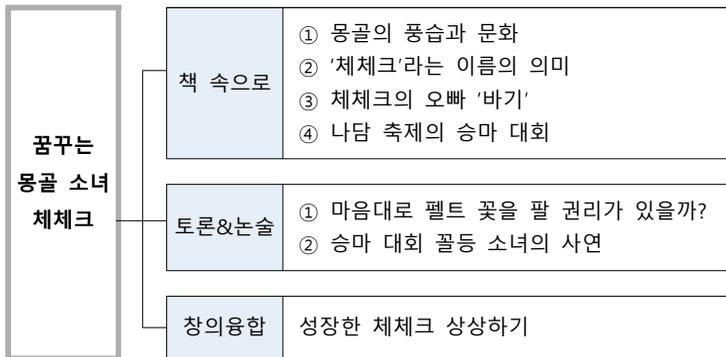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

- * 글: 김향이
- * 그림: 백대승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 정가: 10,000원
- * 분량: 176쪽
- * 대상: 초등 6학년

· 책 소개

‘체체크’는 몽골 말로 꽃을 뜻합니다. ‘꽃’이라고 하면 정원 한 편에 피어난 꽃처럼 양전하고 여린 소녀를 떠올리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체체크는 그런 소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없는 꽃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칠지만 힘차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찬 아이입니다. 마치 초원의 거센 바람에 몸부림치면서도 끝내 아름답게 피어나는 들꽃처럼, 체체크는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산에서 다친 야생말을 구조해서 데려와 길들이고, 장학금을 목표로 나담 축제의 승마 대회에 도전합니다. 비록 승마 대회에서 꼴찌를 하지만, 체체크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 내는 강인한 마음가짐과 실패를 통해 더욱 현명해지는 법을 깨닫습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차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을 짐작해봅시다.

1.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라는 책 제목과 책의 앞표지를 보고, 책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을 예상해서 적어보세요.

인물 예상하기	
사건 예상하기	
배경 예상하기	

* (2~3)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절대로 이름 없는 꽃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꽃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체체크
 체체크는 자신의 이름이 초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없는 꽃처럼 살라는 뜻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기죽어 있지만은 않았지요.
 매일매일 아무지게 가축들을 돌보고 산에서 다친 야생말을 구해 내기도 해요.
 그리고 직접 승마 대회에 나가기도 하지요.
 척박한 몽골 초원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씩씩한 몽골 소녀 체체크의 이야기를 만나 볼까요?

2. 이 책에 나오는 체체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꿈꿀까요?

⇨

3. 차례를 보고, 이야기에 나올 사건이나 주인공의 행동 등을 상상하여 써보세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꼼꼼히 읽기

- 내용을 짐작하며 읽기
- 다른 책 또는 작품과 관련지어 읽기
- 질문하며 읽기
- 꼼꼼히 따져가며 읽기

※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를 꼼꼼히 읽으면서, 아래 (예)처럼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구분	페이지	책을 꼼꼼히 읽기
내용을 짐작하며 읽기	(예) 29쪽	'체체크'의 오빠 '바기'는 학교 밴드 연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오빠의 밴드 활동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책 또는 작품과 관련지어 읽기		
질문하며 읽기		
꼼꼼히 따져가며 읽기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몽골의 풍습과 문화**

※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의 책 내용에서 몽골의 풍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페이지	몽골의 풍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부분
(예) 26쪽	4월 말부터 번덕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몽골 유목민들은 봄맞이 이사를 서두른다. 보통 일 년에 네댓 번 이사를 하는데 봄 이사가 그 시작이다. 그동안 몸담았던 게르를 뜯어 내고 가재도구와 가축을 끌고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체체크'라는 이름의 의미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체체크는 자기 이름도 듣기 싫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체체크(몽골 말로 꽃이라는 뜻)가 뭐람.'
 초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없는 꽃처럼 살라는 말 같아서 더욱 싫었다.
 꽃은 움직일 수 없다. 그저 뿌리 내린 자리에 붙박이로 있다가 열매 맺고 씨앗을 품고 가축들의 먹이가 되거나 짓밟힐 뿐이다.
 "여자는 그저 꽃처럼 곱게 자라서 일찌감치 시집가는 게 최고 행복이지."
 아버지는 못이 박히게 말하곤 했다.

(나) 아버지는 오빠가 체체크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계집애보다 못하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체체크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고소해하다가 '계집애보다'소리에 화가 났다.
 체체크는 엄마를 쏘아보았다. 엄마는 이글이글 타는 체체크의 눈빛을 못 본 척 무시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일손을 놀렸다. (중략)
 엄마가 체체크에게 눈을 흘기고 흥비취를 달랬다.
 엄마는 '계집애'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오빠와 체체크를 차별했다.

(다) "꽃들이 초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니?"
 체체크는 푸른 용단에 무늬를 새기듯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았다. 그리고 잠자코 아버지의 다음 말에 귀 기울였다.
 "꽃들은 자신을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은단다. 꽃들을 몸부림치게 하는 거센 바람이 꽃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셈이지." (중략)
 체체크는 비로소 자기 이름이 왜 꽃인지 알게 되었다.

1. 윗글 (가), (나)에서 체체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각각 찾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이유
(가)		
(나)		

2. (다)에서 체체크 아버지의 말을 참고로, 체체크의 아버지가 딸에게 '체체크'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짐작하여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체체크의 오빠 '바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체체크는 오빠가 왜 이 핑계 저 핑계로 늦게 돌아오는지, 가축을 돌보는 일이라 집안일에 소홀한지 안다. 학교에서 상급생들과 밴드 활동을 하느라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축을 몰고 나가서도 노래 연습을 하느라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 오빠는 연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졸랐는데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았다.

(나) 오빠는 5월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은종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연습 중이었다. 오빠가 유지원 은종 축제 때 노래를 부르고 박수 갈채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가 오빠에게 말했다.
 "아버지 소원은 네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돈과 명예는 한순간이지만 덕망과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 "당신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이번 여름 방학부터 자르갈한테 보내서 공부시킬 테니, 학비 때문이라면 걱정 마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벌어서 댈 테니."
 엄마 목소리도 양동이 소리처럼 요란했다.
 "부모가 다행해도 그 모양인데 이모 집에 가면 오죽할까? 고삐 풀린 망아지밖에 더 되겠어!" (중략) 게르 안에서 엄마가 울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자식들한테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몸 사리지 않고 일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 나게 고마워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또 서러웠다.

1. 체체크의 오빠 '바기'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체체크의 오빠 '바기'의 미래에 대해 아버지와 엄마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나), (다)를 참고하여 파악해보세요.
⇒
3. 만약 여러분이 체체크의 오빠 '바기'라면 (나), (다)의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바기'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나담 축제의 승마 대회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 흥노 시대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벌어지던 나담 축제는 7월 11일부터 사흘 간 전국에서 열렸다. 씨름, 말타기, 활쏘기 시합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씨름 선수, 가장 빨리 달리는 기수, 가장 활 잘 쏘는 궁수를 뽑았다.

올해부터 청소년부 특별 상금은 장학금이라는 공지에 체체크 눈이 커졌다. 장학금이라는 글자가 자석처럼 눈길을 끌었다. 엄마가 만드는 비자금 중에 자기 몫의 학자금은 없다는 걸 알기에 장학금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당연했다.

(나) 체체크도 보았다. 자기 앞에 앉선 말이 없다는 것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울렁울렁 구역질까지 났다. 체체크는 속력을 낼수록 고삐를 느슨하게 잡으라던 첼맥 아저씨의 말과 달리 고삐를 잡아당겼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졌다. (중략)

얼거말이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습지를 피해 천천히 가장자리로 지나갔다. 언덕길도 내리막길도 조심조심 오르고 내렸다. 얼거말은 주인이 떨어질까 봐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고, 체체크는 더위 먹은 개 헛바닥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다) “누나 온다!” 지평선 너머에서 작은 점으로 솟아난 얼거말을 보고 흥비취가 소리쳤다. (중략)

“체체크! 어떻게 된 일이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체체크를 안아 내렸다.

“너무 긴장해서 급체를 한 모양입니다. 토했으니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안전요원이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시합에 저 봐야 이길 수도 있는 거다. 속상해할 것 없다.”

의료팀 곁에서 지켜보던 첼맥 아저씨는 얼거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1. 체체크가 나담 축제의 승마 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첼맥 아저씨가 말한 ○은 어떤 의미일까요?

⇒

3. 결국 체체크는 승마 대회에서 꼴등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체체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 ① 마음대로 펠트 꽃을 팔 권리가 있을까?

※ 아무 탈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약초를 사서 얼거말에게 먹이기 위해, 체체크가 그동안 자신과 엄마가 만든 펠트 꽃을 엄마 몰래 가져다 관광객들에게 팔기로 하는 장면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체체크가 펠트 꽃을 엄마 허락 없이 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해보세요.

“새끼는 다치지 않았겠죠?” 체체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글썸다. 상처에 딱지가 굳은 것으로 봐선 굴러 떨어진 지 며칠 된 것 같기도 하고……. 황금뿌리를 먹이면 금세 좋아질 텐데…….”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중략)

찾물을 끓이려던 체체크 눈에 펠트 꽃을 담아 둔 바구니가 들어왔다.

“펠트 꽃을 팔아 약초를 사면 되겠네!”

엄마는 틈틈이 만든 펠트 꽃을 울란바토르에서 잡화상을 하는 자르갈 이모에게 보냈다.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받는 꽃값은 엄마의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통장에 모였다.

‘내가 만든 꽃값도 상당히 모였을 거야.’

체체크는 엄마 몰래 바구니에서 꽃을 덜어 내어 책가방에 숨겼다. 학교 다녀오는 길에 첼맥 승마장에 들러 관광객들에게 팔 생각이었다. 날마다 조금씩 빼내다 팔면 얼거말 약초 값은 문제없을 성싶었다.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든 몫을 가져가는 거야.’

주제: 체체크는 엄마 몰래 마음대로 펠트 꽃을 팔 권리가 있을까?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근거:	근거:



독서 후 토론&논술 ② 승마 대회 꼴등 소녀의 사연

* 아래 글은 나담 축제의 승마 대회에서 꼴등을 한 체체크 이야기를 신문 기자가 취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 신문에 체체크의 사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실렸다고 상상하여 그 내용을 써봅시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쓰세요.

<조건> 체체크가 승마 대회에 참여한 이유, 승마 대회를 준비한 과정, 승마 대회의 결과

“세상에! 어젯밤 우리 막내 살리겠다고 비를 맞고 고생하더니 병이 났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라 엄마가 둘러선 사람들에게 어젯밤 일을 떠벌였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달려왔던 신문 기자가 사라 엄마를 붙들고 인터뷰를 했다. 첼맥 아저씨도 체체크가 얼거멸을 위해 승마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일과 얼마나 열심히 얼거멸을 훈련시켰는지를 기자에게 말했다.

“체체크, 꼴등 축하한다.”

사라가 야생화를 엮어 만든 화환을 목에 걸어 주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99번, 잠깐만 그대로 있어 봐요.” 취재를 하던 신문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다.

“일등 하겠다고 장담하던 놈이 꼴등 하고 신문에 날 사진 찍히는 건 처음 보겠네.”

첼맥 아저씨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표제 :

부제 :



독서 후 창의융합_ 성장한 체체크 상승하기

1. 일 년 후, 체체크가 승마 대회에 다시 참가한다면 대회 전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승마 대회에 참가하는 체체크의 마음과 일 년 동안 체체크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일지 예상해서 승마 대회 전날, 체체크의 일기를 써보세요.

2.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의 앞뒤 표지에 실린 그림은 체체크의 현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체체크가 성장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새로운 책표지를 만들어보세요.

뒤표지	앞표지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인물 예상하기	체체크라는 몽골 소녀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인물이 나올 것이다.
사건 예상하기	체체크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말을 타고 씩씩하게 떠날 것 같다.
배경 예상하기	공간적 배경은 몽골의 초원, 시간적 배경은 현대일 것이다.

2. (예시답안) 몽골 초원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무대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것

3. (가이드)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미리 살펴보고 내용을 짐작해보으로써 책을 읽는 중에 자신이 예상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답안 생략.

■ 독서 중

(예시답안)

· 다른 책 또는 작품과 관련지어 읽기: 14쪽. ‘칭기즈 칸’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체체크의 아버지가 부른 칭기즈 칸 노래를 보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세계사 책에서 칭기즈 칸과 관련된 몽골의 역사를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 질문하며 읽기: 42~43쪽. 울츠는 집을 나가서 지내는 몇 달 동안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지냈을까? / 57쪽. 울츠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정말 야생 동물들과 어울렸던 것일까?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몽골의 풍습과 문화

1. (예시답안)

페이지	몽골의 풍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구절
21~22쪽	사실 아버지가 술고래인 것은 아니다. 몽골 남자들은 술대접을 받을 때 만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게르 주인에 대한 예의로 안다. 오늘 일등레스

[예시답안과 가이드]

	집에 손님으로 간 아버지가 만취해서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38쪽	몽골에서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가장 적게 받은 막내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 준다. 막내는 식구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50쪽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고 게르를 지을 터를 골랐다. 그다음 일등레스의 아버지와 쿤데르의 도움을 받아 카나를 세웠다.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카나 다섯 개를 동그랗게 세우고 끈으로 묶어 고정시켰다. 남쪽 벽에 문을 고정시킬 때는 아버지가 나서서 소가죽 끈으로 단단하게 묶었다. (중략) 게르 골격을 다 세운 뒤에 양털로 짠 펠트로 벽을 감싼 다음, 안쪽 벽을 펠트로 한 번 더 감쌌다. 양털을 넣고 누빈 천으로 게르 지붕을 덮은 다음에는 모두 달려들어 지붕을 덮은 천막을 벽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91쪽	엄마는 양털을 다져 만든 펠트를 펼쳐 놓고 신발 본을 뜨고 있었다. 흥비쉬가 신을 ‘이스키 고탈(양털 펠트로 만든 몽골 전통 신발)’을 만들 모양이었다. 양털로 만든 이스키 고탈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구별이 없어 신고 벗기도 편하다. 뒷굽이 없는 대신 앞코를 들어올려 멧을 냈다.
120~121쪽	한낮이 되어 친척과 이웃들이 모인 가운데 흥비쉬는 머리 깎기 의식을 치렀다. 큰아버지가 푸른 천으로 감싼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 열 가닥 정도를 잘랐다. 큰아버지가 돈 봉투를 선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앉은 다음, 친척 어른들이 흥비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냈다.

◎ 책 속으로 ② ‘체체크’라는 이름의 의미

1. (예시답안)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이유
(가)	체체크	이름 없는 꽃처럼 살라는 말 같아서
(나)	계집애	계집애라서 오빠와 차별받기 때문에

2. (예시답안) 거센 바람을 맞으며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어 벌과 나비를 불러 모

[예시답안과 가이드]

은 꽃처럼, 체체크가 시련 속에서 더 강해져 자기만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에게 '체체크'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 책 속으로 ③ 체체크의 오빠 '바기'

1. (예시답안)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2. (예시답안) 아버지는 바기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혜가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엄마는 바기가 공부를 해서 돈과 명예를 얻고, 몽골의 유목민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3. (예시답안) 부모님, 제가 지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밴드 활동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밴드에서 음악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 적성에 맞고 행복해요. 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삶의 방향 또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책 속으로 ④ 나담 축제의 승마 대회

1. (예시답안) 특별 상금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2. (예시답안) 실패를 했을 때의 경험을 통해 다음 시험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3. (예시답안) 체체크, 비록 이번 승마 대회에서는 장학금을 못 타고 꼴찌를 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음 승마 대회에서는 지금의 노력과 경험으로 꼭 좋은 성적을 내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음 대회에도 꼭 출전해서 네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랄게!

◎ 토론&논술 ① 마음대로 펠트 꽃을 팔 권리가 있을까?

(예시답안1)

[예시답안과 가이드]

[권리가 있다]

펠트 꽃은 엄마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체체크도 같이 만들었으므로 체체크가 만든 펠트 꽃은 엄마의 허락 없이 체체크가 팔아도 된다.

엄마는 비상금을 모아 오빠의 유학비로 쓰려고만 하고 체체크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펠트 꽃 중에는 체체크가 만든 꽃도 있기 때문에 펠트 꽃 판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체크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체체크는 자신이 만든 펠트 꽃을 팔 권리가 있다.

(예시답안2)

[권리가 없다]

체체크도 엄마와 같이 펠트 꽃을 만들긴 했지만 펠트 꽃 판매를 관리하는 사람은 엄마이다. 그런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펠트 꽃을 팔 권리가 체체크에게는 없다.

체체크가 펠트 꽃을 만드는 일은 집안일 중 하나이다. 가족을 돌보거나 이사를 돕는 일과 같은 것이다. 집안일의 일부를 도왔다고 집안의 물건을 체체크가 마음대로 팔 권리가 없는 것처럼 펠트 꽃도 체체크가 엄마 몰래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 토론&논술 ② 승마 대회 꼴등 소녀의 사연

(예시답안)

표제 : 승마 대회 꼴등 소녀의 사연
 부제 : 대회 전날 밤중에 비를 뚫고 달려 친구 동생을 구한 소녀,
 감기와 급체로 승마 대회 결승전에 꼴등으로 도착하다

나담 축제 승마대회에서 꼴등을 한 소녀의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처음 참여하는 체체크는 대회 전날 위급한 상황인 친구 동생을 구하려 밤에 비를 맞으며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느라 감기에 걸렸다. 다행히 친구 동생은 체체크의 응급 처방과 모시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체체크는 대회 전날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린 데다 당일 급체가 겹친 탓에 승마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꼴등으로 결승전에 도착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 승마 대회에 참여한 체체크는 그동안 야생마를 길들여 꾸준히 대회를 위해 연습해 왔다. 비록 꼴등을 했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은 친구 동생을 구한 체체크를 자랑스러워했으며, 체체크는 다음 승마 대회를 기약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 창의융합_ 성장한 체체크 상상하기

(예시답안)

내일 다시 승마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승마 대회에서 꼴등을 한 후, 일 년 동안 꾸준히 승마 대회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승마 대회 이후 부모님도 나를 믿어주고 승마 대회 준비를 도와주셨다.

오빠가 밴드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엄마는 승마 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더라도 오빠 대신 나를 유학을 보낼지 고민하는 것 같다. 유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승마 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더라도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승마 대회에 참여하면서 부모님의 믿음도 얻었고, 나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일도 나를 믿고 승마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2. (가이드) 체체크의 1년 후, 10년 후 등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도록 합니다. 1년 후 승마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이나 10년 후 도시에서 직장 여성이 되어 있는 모습 또는 10년 후에서 몽골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체체크의 모습 등 다양하게 상상하여 그리도록 합니다.

답안 생략.